커뮤니티를 향한 나눔지
News Letter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연락처: 646-450-8603
www.kace.org

<제 80 호> 2024 년 8 월 23 일

<메이플 릿지 브루더호프 공동체 방문기>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1 일 견학-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4-47)

지난 5 월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기독교평화 네트워크' (기평넷) 창립 대회와 KAPAC 주최 '한반도 평화컨퍼런스'에서 반갑게 만났던 박성훈 형제님과 최순옥 자매님의 초대로 뉴욕주 메이플 릿지 소재 부루더호프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이보교) 임원들의 1 일 견학 (field trip) 프로그램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공동체의 이모저모를 상세히 안내해 주시고 궁금한 질문들에 답해주시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형제애로 환대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에 드린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써주신다고 하셔서 더욱 큰 감화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날 두 분을 통해 배운 내용과 소감을 간략히 정리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신학자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제 1 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비참한 혼란 속에서 '생명, 사랑, 정의, 평화,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 준 사명이라는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20 년 독일 자네츠에서 브루더호프 (형제들의 처소라는 뜻)를 창설하고 공동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의해 추방 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본부를 옮기고 여러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남미의 파라과이를 거쳐 북미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 한국 강원도 영월에도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00 여 명이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빈부의 격차도 없습니다. 각자 능력만큼 일을하고 필요한 것을 나눕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공동체의 먹거리는 거의 대부분 자체내의 농장에서 기른 채소, 과일, 육류, 계란, 우유 등을 사용합니다. 백프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8 학년 까지는 공동체 내의 학교에 다니고 9 학년에서 12 학년은 공동체가 설립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대학을 타주에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18 세가 되면 공동체에 남을지 떠날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습니다. "물론 사람사는데는 어디나 있는 갈등은 갈등은 저희도 있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사랑과 존중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순옥 자매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웠던 것은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였습니다. 자체내 병원에서 치과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큰 수술이 필요하면 외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큰 수익 사업은 '가구 공장' 입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어린이와 장애인용 가구는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수제 명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주문 생산제이며 전세계의 어린이 병원과 유치원등에 납품합니다. 가구 하나 하나가 믿음과 사랑과 신성한 노동의 결과물 이라고 말하며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쟁 기업이 생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북한의 장애인 시설에도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공동체 방문을 마친 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공동체들 중에서 이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진복팔단에 가까운 삶을 백년 이상 유지해온 평신도들의 공동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를 보고자 한다면 이곳을 꼭 방문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하는 바 입니다.

"브루더호프는 참 이상한 나라다. 세상에서는 잘 배우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대접받지만 오히려 이 곳에서는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이 곳에서도 참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곳에선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회사 CEO 나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교사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전기공이나 배관공이나 목수나 농부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나르는 사람이나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이나 모두 한 형제이고 자매이며 각자가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쓰임이 다른 하나의 벽돌 일 뿐이다. 우리는 소유를 내려놓고 함께 공유함으로 맘몬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우리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주님이 주심을 기억하고자 한다." (박성훈 형제님의 저서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중 아무라도 자그마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12,13 쪽)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 '프로젝트 2025'를 중심으로

만일 금년 11 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재선될 경우 이민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재선될 경우 이민 정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이민변호사 협회등은 트럼프 2 기는 1 기 때보다 더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급회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글은 트럼프 2 기의 정책 기조를 정리해 놓은 '프로젝트 2025'의 개괄적인 내용과 주요 이민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I. 프로젝트 2025 란 무엇인가?

프로젝트 2025 는 2024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연방 정부를 보수권력으로 바꾸기 정책 제안 문서다. 일명 '보수주의의 바이블' 또는 'MAGA 진영의 선언문' 이라고도 불린다. 약 1 천 페이지에 달하며 보수주의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100 여명의 보수 지식인 및 트럼프 1 기 관료들이 함께 작성했다. 서문에서 밝힌 책자 출간 이유는 이렇다. "오늘날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이 두가지 커다란 적들에 의해 분열과 위험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70 년대 시작된 반전, 민권, 여권, 환경, 친이민주의자들이며, 둘째는 중국의 전체주의 독재정권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세력들로 인해 망가진 미국을 보수주의의 가치로 재건하자!(Make America Great Again!)"

이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한다. 핵심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들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고 지속가능한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그 안에 심는 것이다.

첫째, 정책 안건: '리더십을 위한 명령'으로 불리며, 대통령 취임 후 나라가 직면한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공한다.

둘째, 대통령 인사 데이터베이스: 전국적으로 확고한 보수주의자들을 찾아 다음 행정부에서 보수집권 강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통령 행정 아카데미: 워크샵, 세미나, 온라인 비디오 및 멘토링을 통해 보수적 이념을 학습하고 주지하도록 한다.
넷째, 180 일 플레이북: 새로운 행정의 처음 180 일 동안 집행하게될 행동 계획서다. 국방, 외교, 노동, 교육, 문화, 세금, 이민등 모든 행정 분야를 망라한다.

II. 프로젝트 2025 에 나온 주요 이민 정책

프로젝트 2025 에 나온 주요 이민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 이민을 축소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반이민정책들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끼칠 영향들은 다음과 같다.

(1) 드림법안 폐지 및 다카 프로그램 축소: 연방 의회에서 드림법안의 통과를 막고 다카 프로그램도 다른 방법을 통해 축소한다. 예를들어 적체가 많을 경우 신청을 동결한다. 다카 드리머들의 학비지원을 허용하는 학교에 연방 재정지원을 차단한다. 결국 다카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수 많은 청소년들이 취학과 취업의 기회를 잃게되고 추방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2) 인신매매 및 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U 비자와 형사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T 비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한다. 범죄의 피해자들이 신분을 잃게되고 추방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3) 가난, 전쟁, 폭력, 자연재해 피해국가 난민들을 위한 임시신분신청 (TPS)을 폐지한다. 돌아갈 나라도 없는 난민들이 불체자로 전락하고 추방의 취기에 놓인다.

(4) 농업, 어업등의 계절 노동자 비자 H-2A 와 H-2B 를 폐지한다. 이민자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게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5) 전문직 취업비자 H-1b 의 임금 기준 네가지 중 하위 두가지를 폐지하여 고임금 직종만 신청가능하게 한다. 한인 신청자들 대부분은 학부 졸업생들이어서 신청이 원천 봉쇄될 것이다.

(6) 합법 이민 신청비용을 대폭 인상한다. 가난한 이민자들은 신청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7) 합법 이민의 적체가 심할 때 전체 신청서 접수를 자동 중단한다. 합법 신분 유지가 어려워지고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하는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커진다.

(8) 신분변경 신청이 반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는 즉각 미국을 떠나도록 의무화 한다. 결국 최대한 많은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9) 서류미비자와 함께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연방주택보조금을 중단한다. 이민자들이 서로를 감사하여 서류미비자들을 신고하게 만들고 결국 추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0) 중국, 러시아, 인도, 쿠바등 추방된 국민 수용에 비협조적인 국가는 이민 비자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 본국에서 부터 이민 신청 또는 비자 발급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11) 이민국 직원들의 신원조회를 통해 이념적 성향을 확인하고 보수적 가치를 재교육한다. 이민 신청자 인터뷰 시에 SNS 등을 조회하여 사상 검증을 하게될 우려가 있다.

(12) 모든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의무화 한다. 인터뷰가 까다로와 지고 신청서 적체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13) 인구 조사 때 합법신분 여부를 묻는 문항을 둔다. 서류미비자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정부보조 혜택도 줄어든다.

(14) 서류미비자 부모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 시민권 부여하는 '속지주의' 철폐.

서류미비자 부모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

(15) '이민자 보호 주 및 도시' 즉 민주당 성향의 주에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전 까지는 연방 재난지원금을 중단한다.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시와 주가 차별 당하고 재난지원금 중단으로 공공안전이 취약해진다.

(16) 모든 신규 연방 계약은 직원의 최소 70%가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향후 10 년내에 95%까지 증가시킨다. 이민자 기업들은 연방 계약 신청시 큰 차별을 받게된다.

(17) 재무부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의 세금 정보를 국토안보국에 제공해야 한다. 서류미비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다.

III. 프로젝트 2025 에 나오지는 않았으나 실시 가능성이 높은 이민 정책

더욱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이민 정책 고문등을 통해 백인 보수층을 겨냥한 선거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여러번 발표한 공약이어서 선거에서 이길 경우 실시될 확률이 매우 높다.

(1) 대대적 추방 작전: 트럼프 후보 및 이민정책 수석 고문 스티븐 밀러는 반복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 군대를 동원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2) 대규모 집단 수용소 설치: 2 차대전 당시 일본계 집단 수용소와 유사한 체포된 서류 미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형 천막 수용소를 설치할 것이다.

(3) 국경 장벽 추가 건설: 트럼프 행정부 1 기에 이어서 계속하여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추가로 건설할 것이다.
(4) 합법이민을 50%줄이는 법안 상정: 미국내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숫자를 반 이하로

줄이고 백인들이 다수인 나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7 년전 트럼프 1 기의 반이민 정책에 대처하여 추방위기에 놓인 한인동포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법률적, 신앙적 도움을 주기위해 결성되었다. 또한 이민자 핫라인, 세미나, 심포지엄, 다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시민권 신청, 정부지원 프로그램 신청, 법률대책위 활동등을 통해 신분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동포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프로젝트 2025 에 나타난 트럼프 2 기의 이민정책들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7 년전처럼 서류미비자들과 합법이민자 모두를 포함한 한인 동포 이민자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일, 반이민법의 소나기가 내리면 비를 맞는 동포 이민자들을 위해 우산을 들어주고, 우산이 없으면 함께 비를 맞을 각오로 물러섬 없이 함께 이겨낼 것이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레위기 19 장 33~34 절)